

다시 찾은 사랑

The Way Back



한국 오늘의 양식사

신앙 성장 시리즈 Ⅱ

다시 찾은 사랑

The Way Back

한국 오늘의 양식사

차례

발행인의 글 / 김상복 목사.....	4
1.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의 징후	7
1)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재미없다 / 9	
2) 교회가기가 싫어진다 / 11	
3) 개인 기도나 가정 예배를 하지 않는다 / 13	
4) 남에 대한 관심이 없다 / 15	
5) 영적으로 둔감해진다 / 16	
2. 그리스도인이 넘어지는 원인.....	19
1) 자신의 연약함에 굴복한다 / 22	
2)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을 중히 여긴다 / 24	
3) 받은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안다 / 26	
4) 슬픔에 자신을 내어준다 / 28	
3.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에 대하여 알아야 할 사실	33
1) 구원은 잃지 않는다 / 35	
2) 징계를 당할 수 있다 / 38	
3) 조급하게 죽을 수 있다 / 42	
4) 완전한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있다 / 43	
4. 첫사랑을 회복하라	45
1) 생각하라 / 49	
2) 회개하라 / 51	
3) 새로 시작하라 / 53	

첫사랑의 회복



삶 속에서 종종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 내지 공허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주님과 나 사이에 기쁨과 감사와 눈물이 있었고 기도의 은혜를 맛보았고 말씀의 달콤함을 만끽하며 그 감격 속에 시간이 가는 줄 몰랐던 때도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가사 한 마디 한 마디가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고 목사님의 설교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가슴은 냉랭해지고 주일 예배도 빠질 때가 있고 때로는 늦게 도착하기도 하고 성경을 안 읽은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읽기는 하면서도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도는 입안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에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지루함마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나 만족이 없습니다.

왜 나는 이러고 있는가? 새신자들의 흥분과 열정과는 달리 나는 왜 신앙 생활에 재미가 없는가?

감사보다는 불평, 사랑보다는 미움, 평화보다는 갈등, 감격보다는 루-틴, 주님과 나 사이가 떨어진 듯한 느낌 때문에 신앙 생활은 별로 즐겁지가 않은 때가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수가 없다.” 계속 걸도는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 책자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글입니다. 첫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첫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읽어 보시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새로워지는 계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가 나오기 위해 수고해 주신 「오늘의 양식사」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며

김 상 복 목사

1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사람의 징후

우리는 거의 매일 뉴스 매개체를 통해 올바르게 생산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직장을 잃고, 가정을 버리고, 신세를 망치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한때 사회적으로 크게 존경받던 사람이 갑자기 명예를 잃는 경우를 볼 때 우리는 똑같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뒤로 후퇴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은 직장의 일도 잘 하지 못합니다. 전처럼 자기의 외모와 옷 매무새에 대하여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아도 제 때에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전보다 화를 더 자주 낸다거나, 말이 점점 거칠어진다거나,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관심이 적어집니다. 친구들도 이런 변화를 알게 될 때 당황해서 머리를 흔들습니다. 가끔 충고도 하고 도와 주려고 해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파집니다. 더구나 이런 경향이 영적 차원에서 시작되면 이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현상은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주님과 교제로부터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멀어져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음 한결음 자기의 육신과 사단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한때 가슴에 불탔던 밝은 믿음의 빛이 어느새 깜빡거리며 희미해지고, 하나님과 교회에도 무관심하게 됩니다. 몇 달 또는 몇 해가 흘러 가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당신이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이 소책자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 소책자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방황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드리고, 둘째는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믿는 사람들의 본향으로 당신을 돌아올 수 있게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다섯 가지 징후들을 살펴봅니다.

-
1.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재미없다.
 2. 교회가기가 싫어진다.
 3. 개인 기도나 가정 예배를 하지 않는다.
 4. 남에 대한 관심이 없다.
 5. 영적으로 둔감해진다.
-

이러한 특성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합시다. 믿음의 본향으로 되돌아와야 할 필요가 있는 성도의 첫번째 징후는 그리스도인과의 교제에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1)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재미없다

당신은 어떠합니까? 전에는 믿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지 않았습니까? 영적 문제로 대화를 하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간증도 하고, 문제를 앞에 놓고 함께 기도도 하는 그런 모임에 기뻐 참석하지 않

았습니까?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특별히 당신과 뜻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 친구로 사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고요, 특히 온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편치 않고요, 전에 가깝던 친구도 지금은 바리새인처럼 보이거나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라고 흉을 보게 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지금은 믿지 않는 친구들과 더 많이 어울리고, 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지금은 버젓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당신의 모습이라면 당신은 영적 회복을 해야만 합니다.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신 자신도 그것을 압니다. 당신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비참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불행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새로운 성품에 거슬리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되돌아와야 합니다.

시편 1편의 저자는 “복있는 사람”이란 악인과 함부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시편 1:1, 2)

이제부터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믿는 사람들과 다시 교제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십시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기쁨과 영적 평안이 기다리는 본향으로 돌아오는 첫번째 큰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리스도인들의 두번째 징후는 흔히 교회에 갈 의욕이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2) 교회 가기가 싫어진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모임에 자주 빠지는 경우, 이 사람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훌륭한 복음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한 교제의 시간이 있는 줄 알면서도 고의로 빠지는 사람들의 경우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브리서 10:24,25)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출석해야 합니다. 다른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낚시를 간다거나, 골프장에 간다거나, 집에서 쉬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믿음의 본향으로 돌아오는 길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초대 교회의 교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사도행전 2:42)고 하였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6, 47)

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교회 출석에 소홀해지기 쉽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말 여행이다, 짧은 휴

가다, 리크리에이션 모임이다 하는 것들이 강력한 경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주일에 관한 계율을 지킬 의무는 없다. 이런 일에 너무 율법주의로 살지 맙시다.”

그러나 예배와 공부와 성도의 교제를 위한 다른 믿는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빠진다면 영적 성장과 축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일 주일에 한 번 헌금을 내는 것으로 교회 출석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을 했던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십시오. 하나가 되어 기도하십시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온 마음을 기울여 들으십시오. 진실된 마음으로 이와 같이 행할 때에 당신은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떨어진 그리스도인의 세번째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개인기도나 가정예배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 관한 설교를 위해 성도들과 함께 모이지 않을 때 특별한 은총을 놓치

게 되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와 개인적인 교제를 위한 시간을 내지 않을 때에도 패배자가 됩니다. 주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과 단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갖가지 경우에 혼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6)

혼자서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에베소서 6:4). 자녀들에게 성경 들려 주기를 게을리한다든지, 성결한 생활 태도를 가르치지 않는다든지,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 기도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모두가 각자 자기 일에 바쁩니다. 그러나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볼 때 시간을 내기로 마음만 정하면 시간은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받는 영적인 혜택은 여기에 들어가는 노력에 비할 때 훨씬 더 큰 것

입니다. 가족끼리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오는 기쁨도 누릴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진 그리스도인의 네번째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4) 남에 대한 관심이 없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리스도인은 주변 사람들의 영적인 궁핍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날 때 처음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체로 새 신자가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주 예수님과 구원에 대하여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새 신자는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려고 하며 자기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를 말하면서는 눈빛이 반짝입니다. 그러다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미지근하게 변합니다. 첫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남의 영혼에 대하여 느끼던 애절함이 사라집니다. 자기 간증을 할 때의 그 열정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뜨거움과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연민의 정에 다시금 불을 붙여야 할 때입니다.

주님과 멀어진 그리스도인의 다섯번째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영적으로 둔감해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던 때의 영적 예리함이 둔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대체로 이런 현상은 죄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에 처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양의 죄를 보아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와 남들의 죄를 볼 때에 슬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란 자기가 아는 모든 것과 사랑하는 모든 것에 정면으로 대치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순식간에 자기의 죄 짓던 삶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억지로 정당화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인 것을 스스로 잘 알면서도 자신을 관대히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남들의 죄에 대하여도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나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악을 이겨서 그 사람을 영적 승리로 이끌어 보려는 노력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모습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에 대하여 새삼 깨달아야 함은 물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소생시켜야 합니다.

겻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지신 고통은 바로 당신의 죄와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고통과 슬픔이 들어온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남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죄에 대하여 무관심해서는 안됩니다.

첫 장을 마치면서 주님과 여러분과의 개인적 관계는 어떠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사람의 다섯 가지 징후를 가지고 점검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
1.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재미없다.
 2. 교회가기가 싫어진다.
 3. 개인기도나 가정예배를 하지 않는다.
 4. 남에 대한 관심이 없다.
 5. 영적으로 둔감해진다.
-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때 혹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서야만 하겠다. 믿음의 본향으로 돌아가야만 하겠다”라고 해야 할 상태는 아닌지요? 사실이라면 지금 곧 실행에 옮기십시오.

당신이 먼저 할 일은 주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
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잘못된 행실을 끊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서 친구를 찾아보십시오.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개인기
도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관계를
세우고 지켜 나가십시오. 주님의 구속의 사랑에 대하여
남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지키면 그리스도
인이 누릴 수 있는 진실로 놀라운 삶을 재발견할 것입
니다.

2

그리스도인이 넘어지는 원인

시간이 흐르면서 믿는 사람들도 흔히 전에 가졌던 패기와 열정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F.B. 마이어는 「삶의 책임에 대하여」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관찰했습니다. “‘잃어버린 곡조’라는 제목의 이야기는 멋진 노랫말과 웅장한 곡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이 곡은 가을의 저녁 노을이 가득한 한 방에서 손가락을 펴 웅장한 울겐의 건반을 누르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 그 여인은 아무 생각 없이
한번도 쳐본 일 없는 곡을 쳤습니다.
그 단순한 곡조는
웅장한 아멘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천사의 시편의 끝 절처럼
붉게 노을진 방에 넘쳐 흘렀습니다.
소리는 그녀의 고단한 영혼을
영원한 안식으로 덮어 주었습니다.

아픔을 극복하는 사랑처럼
그 곡조는 아픔도 슬픔도 잊게 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새어나온
하나의 신비한 화음이었습니다.

복잡한 세상만사를 하나로 만드는
온전한 평화였습니다.
그리고는 고요한 여운을 남기며
영원히 사라져 갔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올겐 앞
으로 되돌아온 여인은 그 곡조를 다시는 기억할 수 없
었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생각해 보려 해도 소
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곡조가 되었습니

다.” 마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노랫말을 들을 때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호소해오는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평안, 잃어버린 활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친구 한 사람은 평생 목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질문은 “목사님, 도대체 어찌다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다고 내게 말했습니다. 이 질문은 한 남자가 형무소의 한 면회실에서 목사님과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아 흐느끼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전날 밤 이 사람은 술에 만취되어 체포되어 들어왔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남자는 고액 봉급을 받는 직장인으로,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교인으로 아내와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미끄럼질을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심하지 않았지요. 그런 몇 달이 지나면서 직장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에 대한 주위의 신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 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넘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한때 경건한 삶을 살던 교인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적 회복을 필요로 할 만큼 우리를 처절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도 이에 대한 해답을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넘어지는 이유를 적어도 몇 가지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빈번한 원인으로서 다음 네 가지 기본 경향을 꼽을 수 있습니다.

-
1. 자신의 연약함에 굴복한다.
 2.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을 중히 여긴다.
 3. 받은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안다.
 4. 슬픔이나 좌절에 자신을 내어준다.
-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영적으로 후퇴하게 만드는 이러한 원인들을 살펴 보면서 여러분 자신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 보십시오. “나에게는 영적 회복이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교정하는 것이 나중에 가서 여러 해 동안의 고통을 피하게 해 줄 것이고 삶의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이유의 첫번째는 이것입니다.

1) 자신의 연약함에 굴복한다

그리스도인의 성품 가운데에는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 아주 “취약한 부분(blind spots)”이 있습

니다. 이 부분은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다 알아내고야 맙니다. 사단이 바로 이 부분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이 사람은 안이한 성품으로 사귀기 쉬웠습니다. 남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친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도 “노”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남들의 호감을 사고 자신도 사람들을 좋아했지만 바로 그것이 그의 약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면 모든 것을 따라 하였습니다. 남들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자신의 주관도 접어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자기의 약한 부분에 굴복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편 노릇도, 아버지 노릇도, 가계를 책임지는 일도 바르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전에 들려주던 그의 신앙 간증도 이제는 효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위축되는 우울한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완벽주의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구잡이식이고 충동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잘 파악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성 때문에 특별히 유혹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처음부터 피해야 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악한 자의 어떠한 유혹보다 더 위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두번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을 중히 여긴다

여기서는 단순히 세상적인 관행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일을 망각할 정도로 세상일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옛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곳은 내 고향 아니요
난 지나가는 나그네라오
내 보물은 저 하늘 너머
천국에 쌓여있네.

황금빛 천국 문에서
천사가 날 오라 하네
나 이제 이 땅 위에
마음 둘 곳이 없네.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서 순례자로 사는 우리는 다만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가치와, 이 세상에 대한 태도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하늘나라와 영원한 것에 대한 헌신보다 더 중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 물론 편안한 가정과, 좋은 음악과 미술을 즐겨워하는 것이나, 인간의 가치를 드높이는 활동 같은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 : 13)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께 완전한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충성심이 분열되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후퇴하는 원인의 세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받은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수많은 축복(좋은 직장, 건강한 가정, 성공적인 사업)을 받고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성경 말씀을 잊고 지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7)

우리가 주님의 큰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자만하고 자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바대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소홀히하면서 우리 자신만을 믿게 됩니다. 모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도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신명
기 8:10~14)

이 경고의 말씀은 옛 이스라엘 시대에나 지금 20세기에나 똑같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성공을 하면 우리가 잘 해서 된 일이요, 건강하면 언제나 그러한 줄로 아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가난한 나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우리들처럼 얼마든지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욱 감사하며 산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볼 때 그 복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위로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후퇴하는 네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슬픔에 자신을 내어준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비참한 일을 당하면 자기 연민

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향한 분노에서 헤어 나오질 못합니다. 어떤 남자는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자기의 두 아들이 일년 안에 모두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자기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마음이 한없이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책도 덮어두고, 교회도 그만두고, 기도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마침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받아야 할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져 숨어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찾아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어떤 좌절이나 슬픔 속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쓴 뿌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지고, 비참하고 불행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읽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과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좌절감에 자신을 내어 주고 영적으로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지금까지 다룬 이치를 쉽게 표현해 보자면, 옛 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

십시오. 그렇습니다. 예방주사를 맞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병은 미리 알고 조기에 치료해야만 나중에 더 큰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뒤로 물러나 멀어져 있다면 본향으로 돌아와 기쁨과 교제를 회복하는 길이 당신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이 길은 죄를 고백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당신이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면 주님은 언제나 당신을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 나는 레이몬드 비들 목사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소리가 잘 나는 좋은 종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 종 때문에 부끄럼을 당했습니다. 첫 타종 소리가 둔탁하게 들리는 바람에 나는 종치는 사람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사람은 금방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밤새 불어온 눈보라가 종 위에 덮여 1인치나 쌓인 것이 나중에는 얼음처럼 녹아 달라붙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에 모이라고 치는 그 종소리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내게 영감을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소리를 못 내고 숨죽여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간증하려는 모든 노력도 얼음집에 얼어붙는 것과 같이 소리를 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써 맑게 퍼져 울리는 간증의 종소리를 들려 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행실은 이 세상의 얼음 때문에 소리를 못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얼음이 우리의 간증을 덮어 씌워 둔한 소리가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사단이 덮어 씌우는 얼음 때문에 영적으로 얼어붙는 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얼음으로 덮어 씌우는 것은 교만, 질투, 물질주의, 미움, 거짓말, 남의 홍보기, 그리고 시기심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기도와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를 부지런히 하는 것과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9)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아버지 앞으로, 그리고 본향으로 되돌아오는 첫번째 걸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사 첫 걸음을 내딛고 옛 찬송가의 말씀과 같이 기

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죄에 매어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3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에 대하여 알아야 할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후퇴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전문적인 기독교 사역자들도 영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전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존경을 받으며 도덕적인 삶을 사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죄의 길에 들어서기도 합니다. 어

떤 사람들은 직장과 집과 가정을 잘 유지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가 불행하다는 것을 시인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방어하면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감각적이고 이기적 욕망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와 이유는 각각 다르지만 후퇴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전에 했던 것처럼 주님과 가까이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이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얻었던 구원은 다시 잃는 것일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인가? 피할 길은 있는가? 본향으로 돌아올 수는 있는가? 이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여기서는 주님과 교제로부터 멀어진 그리스도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
1. 구원은 잃지 않는다.
 2. 징계를 당할 수 있다.
 3. 조금하게 죽을 수 있다.
 4. 완전한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있다.
-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주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에 대하여 알아야 할 첫번째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원은 잃지 않는다

후퇴한 그리스도인이라도 구원은 잃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느끼기에는 구원도 다 잃은 것처럼 생각될 것입니다. 처음 자신이 얼마나 깊은 죄에 빠져 있는지를 알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틀림없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정이란 때로는 우리를 속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거듭난 사람은 다시는 구원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여기에 가끔 반론이 있으므로 좀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꼭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지 않는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하나는 오래 전에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 활동도 활발했고요, 예수 믿는 신앙을 간증도 했고요, 몇 년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지요. 지금도 죄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죽으면 천당으로 간다는 말씀인가요?”

먼저 확실히 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교리를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둘째로, 그 후퇴한 사람의 참 모습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행동만 남들을 따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에 진실로 귀의한 사람이 구원을 잃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본질상 한 번 받은 것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놀라운 사건들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에베소서 2 : 13)

거듭납니다. (고린도후서 5 : 17)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로마서 3 : 24)

세례받아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 : 13)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 : 19)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 : 13)

하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 : 6)

구원에 대한 영적 진실들의 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과 한몸으로 만드셨다가 다시 떼어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자로 만드셨다가 뒤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하십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 자”라고 하셨다가 그 인치신 것을 지워버리십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본질이 생명을 얻는 일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장 깊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관계를 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몸소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39)

또 6장 47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주님이 주신 다음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떨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 : 27~29)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확실하게 영생을 얻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순종하지 않고 죄의 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거듭난 사람은 결코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뒤로 후퇴하는 것이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멋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알아야 할 두번째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징계를 당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몇몇 교인들이 성찬식에서의 잘못된 행동으로 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

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렸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1:26~32)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할 때 병을 주심으로 징계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채찍을 든 손을 각오해야 합니다. 채찍을 드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사이로 다시 돌려놓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모두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도 하나님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히브리서 12:5~7)

다윗 왕은 밋세바와 음행을 저지르고 밋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한 다음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괴로움을 시편 32편 3절과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5)

또 같은 시편의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병이나 육체의 고통은 주님의 징계로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통과 질병이 숨겨 놓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병상에 누워 있거나 회복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받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지는 마십시오. 고통은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이 죄 때문인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9:3)

사도 바울이 겪었던 “육체의 가시”도 바울의 불순종 때문이 아니었던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병이 죄에 대한 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에 대하여는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죄를 알게 하고 회개를 하라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는 것입니다. 이 채찍이 때로는 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심령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 죄가 보인다면 주님께 고백을 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여기까지 우리는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비록 “영원히 멸망”하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후퇴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번째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조금아게 죽을 수 있다

성찬식을 욕되게 한 데 대한 것으로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고린도전서 11:30)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몇몇 믿는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한 것과 같은 종류의 심판입니다.(요한일서 5:16)

초대 교회에 이에 대한 확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을 팔았습니다. 이들은 판 돈의 전부를 교회에 드렸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은 일부분은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자 아나니아가 죽고 말았습니다. 세 시간 후에는 그의 아내도 똑같은 식으로 죽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죄가 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이라는 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통 이런 식으로 징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악한 길을 고집해가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공연히 능멸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황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네번째 진실은 고무적입니다.

4) 완전한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있다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라도 하나님과의 기쁨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향으로 돌아오는 길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죄를 고백하고 버리기를 원하는 그 불순종했던 자녀도 용서하고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채찍질하기를 즐겨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 복주시기를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는 자기 계모에게 큰 죄를 지은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르기를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어 육신을 멸하게 하라”(5절)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한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어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5절) 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 바울은 이 사람의 동역자들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라고 부탁하였습니다(고린도후서 2:7, 8)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미 용서하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다시 구원을 잃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죄악된 길을 계속 걸어가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나 재정적 역경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향해 본향으로 돌아오기를 권면합니다. 당신의 무관심과 사악함이 주님께 대한 죄를 범한 것이며 그 분을 가슴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 분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십시오.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금 곧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4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은 바니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검고, 풍성하고, 굵실거리는 머리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단 한 가닥의 머리카락만 남았습니다. 어느날 아침 잠을 깨어 베개를 보니 거기에 단 하나밖에 없던 귀한 머리카락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아랫층으로 달려 내려오면서 외쳤습니다. “여보, 여보, 나 대머리

됐어!”

이것은 머리숱이 적어지는 사람들을 놀려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적인 일에 발을 담그어 발장구를 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더욱 더 멀어져만 가고 죄는 더욱 더 깊어만 갑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깨닫지 못한 채 그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소스라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다시 깨어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은 그리스도인이 알 수 없도록 천천히,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씩 밑으로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영적 권능을 모조리 빼앗긴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참 모습을 알 수 있게 만듭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여러분 가운데에는 여러 해 전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나 지금 죄의 길에 들어서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입니다. 죄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참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경우라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말씀은 당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향으로 돌아오는 길을 가르쳐 드립니다.

첫번째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리스도인의 징후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믿는 사람들

과의 교제가 재미없다, 교회에 가기가 싫어진다, 영적으로 둔감해진다, 기도하는 것과 남에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

그 다음에는 뒤로 후퇴하게 되는 원인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은 대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였다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무디 성경학교의 교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망하는 것은 단번에 터지는 것이 아니고 대개 서서히 물이 새는 것처럼 망한다”라고 하였는데 정말로 그대로입니다. 모든 문제는 대개 약한 부분에 조금씩 양보하거나, 하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중히 여기거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얻는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불꽃은 시들어 죽어버리고 영적 생활은 어느새 차가워집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죄 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지 알아보았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겠지만 고통과 좌절과 질병과 같은 것을 통해 채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조금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성찬식에서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병이 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

였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린도전서 11 : 30)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용서를 진심으로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본향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사랑하시며 영혼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십니다.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방황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초기 단계이거나, 혹은 여러 해 동안 죄의 길에 들어서 있거나) 이제부터 주님께 되돌아올 수 있는 세 개의 단계를 말씀드릴 때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단계는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말씀으로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 : 5)

이 구절에서 나오는 세 가지 단어,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가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였던 성도가 주님께 돌아오면서 취할 세 가지 단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1.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옛 삶을 생각하라.
 2. 죄를 회개하라.
 3. 순종과 믿음의 생활을 새로 시작하라.
-

주님께 돌아오는 첫번째 단계를 보십시오.

1) 생각하라

당신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직후에 누렸던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즐거움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죄 사함을 받은 감격과 성경을 읽으며 얻은 만족감들, 교회에 출석하며 얻은 은혜들, 성도의 교제와 기도를 통해 하늘의 아버지와 특별히 가까웠던 그 모든 기억들! 당신은 그리스도 사랑하기를 목숨을 내어 줄 만큼 사랑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모든 것을 남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와 받아주심을 무척 귀하게 여겼었습니다.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당신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 백성 사랑하는 것은 각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전 일입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윌리엄 카우퍼의 다음 노랫말이 마음에 와 닿을 수밖에 없겠지요.

나 주님 처음 뵈 때
그 행복 어디로 갔나?
영혼마저 새롭게 해 주시던
예수님과 그 말씀 어디로 갔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겠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입니다.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한 남편과 아내가 처음 만나 교제하던 시절과 신혼의 행복했던 시절을 회고할 때에 사랑은 다시 한 번 환하게 타 오릅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어린 시절과 자기의 어머니가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노래를 들을 때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오 헨리는 그의 단편에서 기억의 힘을 잘 묘사합니다. 어느 시골 학교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의 짝은 매우 예쁘고 순진한 소녀였습니다. 소년은 어른이 되어서 나쁜 친구들을 사귀더니 도둑이 되었습니다. 어느날 남의 호주머니에서 무사히 소매치기를 하고는 기쁜 마음으로 오다가 길 저편에서 자기의 옛날 짝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전과 같이 예쁘고 순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와 비교하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달은 남자는 옆 골목으로 몸을 숨겨 가로 등에 머리를 기대고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였습니다. “아, 난 자신을 증오합니다!” 그는 기억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에게 진실로 가장 귀한 분이었던 그 행복한 시절을 회고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전에 기쁨을 누렸던 교제를 회복하는 첫 단계를 밟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본향으로 돌아오는 두번째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2)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예수님은 “생각하라”고만 하시지 않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다”라는 말은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물을 보는 눈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식어질 때, 그리고 뒤로 후퇴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바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변호하거나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죄를 잘못되고, 가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불순종한 것을 고백하고, 죄를 떨쳐 버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도록 다시 받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큰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는 점을 나는 압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 불순종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볼 때에 슬픔과 후회의 감정이 생길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낭비한 시간이나 우리가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생각하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행동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눈물을 더 많이 흘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리스도인이 본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스스로 책임을 지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후회합니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말하십시오.

다음은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세번째 단계입니다.

3) 새로 시작하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에베소의 믿는 자들에게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격려하신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계시록 2:5). 이 권면의 말씀을 문맥에 맞추어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1~5)

4절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열심히 살았던 종전의 삶을 그대로 다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사랑은 종전에 비하여 결코 뜨겁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결혼 생활 속에서 자주 봅니다. 예를 들어, 한 남편이 자기만 즐기는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점점 아내를 당연히 그 자리에 있는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돈도 착실히 벌어오고 밤에는 꼬박꼬박 들어온다 해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 남편의 말이나, 시선이나, 듣는 태도를 보면 처음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시금 원상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에 하던 것처럼 아내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작은 일에도 신경을 쓰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기뻐하는 일을 하고, 언제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성도들도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첫사랑의 촛불을 다시 밝혀야 합니다. 주님 섬기기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로 돌아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주님과 동행할 때 누리는 기쁨과 만족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 있다면 본향

으로 돌아오는 세 단계를 다시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1단계 : 생각하라 전날에 기뻐던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다른 믿는 사람들과 신실하게 교제하며 주님을 열심히 섬기던 그때 당신이 누렸던 그 행복함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지나간 추억으로 감상에 젖어 볼 때(믿음의 본이 되셨던 부모님, 예수 믿는 집안, 감격을 주던 교회의 예배 등으로) 하나님에게로 나가기에 훨씬 쉬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경험했던 축복들을 모두 회고한 다음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2단계 : 회개하라 현재 삶의 방법에 관한 당신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지금의 삶을 옳지 않다고 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십시오. 꾸지람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3단계 : 새로 시작하라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회개한 다음 전에 하였던 순종의 삶을 다시 사십시오.

생각하고, 회개하고, 새로 시작하라! 이 세 가지 단계를 모두 마치기 전에는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께 되돌아

오는 길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이 책을 끝마치면서 이 책을 꼭 읽어야 하실 분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 죄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불순종의 삶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찍질하십니다. 생명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믿음의 삶에서 얻게 되는 축복과 기쁨은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배운 세 가지 단계를 꼭 밟으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새로 시작하십시오.” “첫사랑”을 버리기 전에 살았던 대로 다시 사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이 해야 할 몫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몫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때에 이 찬송시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한국 오늘의 양식사

■ 구독 신청과 독자 주소·전화변경 받는곳

전 화 : (0342) 780-9565~7

F A X : (0342) 780-9569

E-mail : odbkor@hitel.net

인터넷 : <http://www.hallelujah.or.kr>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2 우편번호 : 463-070

■ 선교헌금 안내

오늘의 양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권당 450원의 제작비를 도울 선교헌금을 보내 주심으로써 문서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번호·예금주 : 「할렐루아선교원」

한빛 : 122-143075-01-101

한빛 : 132-05-108980

국민 : 097-01-0199-703

서울 : 16301-1886909

외환 : 026-13-33750-7

제일 : 107-10-109840

농협 : 001-01-214911

조흥 : 308-01-137748

우체국 : 012773-0026681

■ 섬기는 분들

발행인/김상복 편집장/김승호 고문/최태의 위원장/김경현

봉사위원대표 : 총무/차일환 기획/정호균 회계/최석주 관리/이종규

출판/이덕진 발송/임길택 홍보/김대환 상담/김영자

제작/소망사 : 733-4242 · 팩스 : 733-4243

신앙 성장 시리즈 11

다시 찾은 사랑

인 쇄 / 1999. 10. 25

발 행 / 1999. 10. 30

발행처 / 한국 오늘의 양식사

전 화 : (0342)780-9565~7

①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가 좌절감, 고통, 슬픔에 잠길 때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②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즐거운 신앙생활 안내

③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죄 용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

④ 복있는 사람

진정한 행복이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참 행복의 설계

⑤ 균형있는 가정생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가정생활

⑥ 왜 살아야하나?

삶의 의미와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하루하루를 뜻있게 사는 길

⑦ 행복한 결혼생활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공적 결혼의 10가지 요소

⑧ 남자다운 남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남자! 그 모습대로 완성되어 가는 길

⑨ 여자다운 여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자의 모습!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인의 삶

⑩ 걱정없이 살고 싶다

왜 걱정합니까? 걱정없는 삶의 성경적 해답

⑪ 다시 찾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첫사랑의 감격과 활력을 회복하는 길

⑫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섯 가지 기본원리

「신앙성장 시리즈」 구독신청 및 선교헌금 안내

청원 및 헌금자	성명			전화									
	주소	(우편번호 :)											
받는 사람	성명			전화									
	주소	(우편번호 :)											
출석 교회	시리즈번호	직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신청부수		헌금입금은행 : ()은행											

■ 선교헌금 안내

『한국 오늘의 양식사』는 『신앙성장 시리즈』를 통하여 성도들의 영적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 책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제작비(권당 600원, 운송료 포함)를 도울 선교헌금을 보내주시므로써 문서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계좌번호 <예금주 : 할렐루야선교원>

한빛 : 122-143075-01-101 한빛 : 132-05-108980 국민 : 097-01-0199-703
서울 : 16301-1886909 우체국 : 012773-0026681 제일 : 107-10-109840
농협 : 001-01-214911 조흥 : 308-01-137748 외환 : 026-13-33750-7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2 『한국 오늘의 양식사』 우편번호 : 463-070

전화(0342)780-9565 ~ 7 FAX (0342)780-9569

신앙 성장 시리즈 Ⅱ

『다시 찾은 사랑』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은 주님과 의 교제로부터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멀어져 감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동과 열정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이 책자는 첫째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 방황하고 있는지를 진단하여주고, 둘째 방황하는 이들에게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사람들의 징후
- 그리스도인이 넘어지는 원인
-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알아야 할 사실
- 첫사랑을 회복하라



Radio Bible Class

이 책자는 미국의 R.B.C(Radio Bible Class)에서 발행한 "The Way Back"을 『한국 오늘의 양식사』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번역 출판한 것입니다.